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경기도 재외동포청 인천설치 확정!
		배포일자	2023년 5월 24일(수) 총 3매	
담당 부서	노인정책과	담당자	• 노인정책팀장 김창현 ☎440-2811 • 담당자 염상균 ☎440-2815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 최초 인천시립요양원 오는 9월 준공

- 수탁기관 선정 등 준비과정 거쳐 내년 3월 개원 목표 -
 - 치매전담실, 감염병전담구역, 게스트룸 등 특화시설 운영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인천시립요양원이 오는 9월 준공한다고 24일 밝혔다.

남동구 도림동에 들어서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사업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과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돼 지난해 2월 착공했다.

총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지상 3층, 연 면적 2,984.25㎡ 규모로 조성된다. 1층은 업무시설 및 식당, 2층과 3층은 요양과 치료를 위한 시설이 배치된다.

입소정원은 104명으로, 수탁기관 선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다.

특히, 치매 환자의 공공형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치매전담실을 설치해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를 실시할 계획이다. 감염병 상황 발생 시 내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전담구역도 운영된다.

특히, 요양원 내 게스트룸을 마련해 입소한 노인과 가족이 함께 숙박하면서 시설에 적응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. 또한, 옥상텃밭과 산책 데크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입소자들의 신체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인천시립요양원이 어르신 돌봄과 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.” 며 “시립요양원의 준공과 개원이 지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여성가족국 언론브리핑 자료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